

강의실 너머 알찬 캠퍼스 활용법

〈편집자주〉

대학까지 와서 강의만 듣고 집에 갈 텐가? 그렇다면 캠퍼스의 절반만 경험하는 셈이다. 강의실 너머 학교 곳곳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배움의 공간과 기회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캠퍼스를 보다 깊이, 보다 알차게 활용하고 싶은 새내기들을 위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캠퍼스 사용법을 소개한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학습 습관, 단계별로 완성하자

문제집도 없는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꿀팁을 듣고 싶다면, '교내 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주목해 보자.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습법워크숍 ▲한성튜터링 ▲학습컨설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법 워크숍'은 초청된 학습 전문가가 학습 노하우를 알려주는 특강이다. 학습별로 희망자를 모집해 필기 방법부터 발표 기술까지 폭넓은 학습 비

결을 익힐 수 있다.

실제 수강 경험에서 나온 학습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한성튜터링'을 눈여겨 볼 만 하다. 이는 특정 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선배(튜터)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튜티)이 한 팀을 이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튜터링은 사전 신청한 과목을 대상으로 8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된다. 학습 전략을 익히는 것은 물론, 선배와 교류를 통해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학습 비법을 접했음에도 여전히 학습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습컨설팅'이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학습컨설팅은 전문 상담 교사와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지도가 이뤄진다. 이후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상담을 이어가며 개인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 전 회차를 이수하면 비교과 포인트 40pt도 지급된다.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한 단계 발전해 보자.



- 1 본교 재학생들이 '학습법워크숍'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한다.
- 2 기자들이 글로벌라운지에서 학습 교류 활동을 한다.
- 3 기자가 'Design & IT 정보센터'에서 듀얼 모니터를 활용한다.

어휘가 달라지는 한 곳 차이

다음 관문은 과제다. 대학 과제의 핵심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때 글쓰기센터의 '내·외국인 표현능력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과제를 준비해 보자. 해당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1:1로 글 구성, 표현 방식 등 글쓰기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보고서 뿐 아니라 발표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글도 상담 가능하다. 상담 방식은

대면 외에도 화상, 유선, 서면으로도 진행되니 수줍음이 많은 새내기도 용기 내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과제도 놓칠 수 없다. 이제는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다. 그 출발점으로, 글로벌라운지에서 운영하는 ▲English Corner ▲Open Activity ▲Group Speak 등의 활동에 참여해 보자. 'English Corner'는 본교 원어민 교수와 1:1로 영어 보고서 첨삭과 토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회화 연습은 물론 영어 과제와 영작 실력까지 함께 다질 수 있다. 상시 예약이 가능하니 편한 시간에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영어로 많은 사람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싶다면 'Open Activity'에도 주목하자. 원어민 교수의 수업을 듣고 해당 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영어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 이해 능력과 표현력까지 한 번에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로 나누는 깊이 있는 토론을 경험하고 싶다면, 'Group Speak'가 적합하다. 4-8명의 학생이 한 조를 이뤄 교수와 제시된 주제를 놓고 영어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규모 회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Open Activity와 Group Speak는 분기별로 모집이 이뤄지는 만큼, 글로벌라운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학술정보관, 학습별 공간 활용법

이제는 학습한 내용을 차분히 정리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럴 땐 '학술정보관'으로 향해보자. 이곳에는 ▲집중열람실 ▲창의열람실 ▲상상커먼스 ▲멀티미디어정보실 등의 다양한 학습공간이 마련돼 있다. 학습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새내기라면, 미래관 학술정보관 4층의 '집중열람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집중열람실은 조용한 학습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대

화가 제한된다. 자판 소리나 마우스 클릭이 잦은 작업 역시 삼가야 한다.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자유롭게 학습하고 싶은 새내기라면 3층 '창의열람실'을 추천한다. 창의열람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적당한 대화를 나누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인 단위로 이용할 때는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료 탐색과 토론까지 가능한 공간을 찾는다면 5층 '상상커먼스'가 제

격이다. 상상커먼스는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 학술지, 과제도서를 함께 볼 수 있는 복합 학습공간이다. 다양한 자료를 자유롭게 확인하면서 토론이나 가벼운 일상 대화도 가능하다. 소파형 의자와 같은 편안한 휴식 공간과 그룹스터디실도 마련돼 있다. IT 기기를 이용한 학습을 해야 한다면 6층의 'Design & IT 정보센터'와 '멀티미디어정보실'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개인 노트북을 지참할 경우 듀

얼 모니터 기능을 활용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다. 멀티미디어정보실에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한 학습이나 과제를 준비할 수 있어, 발표 자료 제작이나 콘텐츠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정보실의 경우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고 활용하자.



장학금 필승 전략, 성공담에 집중하라



〈편집자주〉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순간 장학금은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점을 관리해 '한성성공장학금'을, 강의실 밖 다양한 활동에 몰입해 '한성도전장학금'을 노려보자. 한성성공장학금은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한성도전장학금은 비(非)교과 활동과 대외 수상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장학생에게는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두 장학금을 중심으로 대학 생활 '만렙' 장학생들을 직접 만나 성공 전략을 들어봤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알아두면 알차게 써먹을 학점 관리법

한성성공장학금은 교과 성적만을 반영해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년 ▲전공 ▲주야 등 단위별로 배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장학생이 선발된다. 선발 이후에는 성적 순위에 따라 단과대학과 전공 단위로 구분되고, 각각 최우수자와 우수자로 나뉜다. 단과대학별 최우수자는 다음 학기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단과대학별 우수자와 전공별 최우수자는 등록금의 70%가 경감된다. 전공별 우수자는 등록금의 30~50%를 지원받는다.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반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이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된다.

그러나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다. 실제 한성성공장학금 장학생은 어떻게 성적을 관리할까. 이들의 성적 관리는 강의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장학생은 강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 시간에 몰두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교수자의 허락을 받아 강의를 녹음하고, 앞쪽 좌석에 앉아 수업 흐름을 따라가는 식이다. 직전 학기 평균평점 4.5점으로 한성성공장학금을 받은 오지은(사회과학 3) 학생은 "강의 녹음은 필기에서 놓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며 "항상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들으니 교수자가 열정적인 학생

으로 기억했다"고 전했다.

대학 공부를 처음 접하는 새내기는 강의 수강만으로 학습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이때 강의 내용을 정확히 학습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나 PPT 등 수업 자료에 목차별로 주요 개념과 예시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필기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교수자가 강조한 부분이나 강의 중 언급된 농담 등을 함께 정리하면 강의 내용을 보다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과제의 방향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오 학생은 "시험에 나오기 유력한 내용뿐 아니라 사소한 농담도 필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문제를 직접 구성해 보며 출제자가 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교수자가 강의 중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시험 유형에 맞춰 직접 문제를 만들고 답안을 작성해 보자. 이 과정에서 헛갈렸던 개념이나 자주 틀리던 내용을 포함해 시험 대비 문제집을 만든다면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오 학생은 "시험을 보기 전에 직접 문제를 구성해 보면서 출제자의 입장이 돼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험까지 대비했지만, 개인 학습만으로는 학생성공장학금에 도달하기 어렵다. 대

학 과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조별과제' 역시 과제의 의도와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성적장학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조별과제에서 리더를 맡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역할을 분담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오 학생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 효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실 밖 성취로 도전하다

성적이 아닌 비교과 활동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성도전장학금은 재학생의 ▲비교과 포인트 ▲대외활동 수상 내역 ▲HSP 참여내역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술·디자인계열 ▲공학계열 등으로 구분되며 계열별로 최우수자는 1명, 우수자는 250:1 비율로 선발된다. 최우수자와 우수자에게는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한성도전장학금은 한성성공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니 알차게 준비해 보자.

색다른 경험과 강의실 너머 배움을 추구한다면 한성도전장학금에 도전해 보자. 교과 외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결실을 만들 수 있다. 우선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맞

는 프로그램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기의 목표를 점검하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역량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계획할수록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권민서(ICT 1) 학생은 "자신과 전공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도 전공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역량과 관심사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에니어그램 ▲라이프 디자인 스킴 ▲스트롱 검사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학사 소식과 일정 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 일정을 고려해 참여할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생긴 이른바 '우주 공강'도 활용해 보는 건 어렵지 않다. 공강 시간을 활용해 짧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하루 일정을 효율적으로 구성해 보자. 이우혁(문과 2) 학생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일정을 조정해 참여한다"고 말했다.

공모전이나 대회 참여는 비교과 성과를 축적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모전에 참여할 때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과감하게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공모전에 떨어지더라도 제출한 보고서나 발표 자료에 대한 자기점검을 거쳐 최종 결과물까지 완성해 두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타 공모전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지 모른다. 주창돈(기계전자 2) 학생은 "본선에 오르지 못한 공모전도 많았지만, 참여 경험 자체가 이후 다른 대회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아르바이트, 멀리 가지 말고 학교에서 끝내자!

'학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별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않고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근로장학'이다. 근로장학은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무 보조, 민원 안내 등을 수행하며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중 본교는 ▲국가근로장학금 ▲면학근로장학금 ▲교육조교 학업장려금 ▲실습·실기·실습 교과목 시수 확대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조교 학업장려금(이하 실습 지원 교육조교 학업장려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 시기와 근로조건 등의 세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 자신에게 알맞는 근로를 신청해 보자.

학교 안팎을 넘나들다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근로장학'에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은, 교내외 기관에서 다양한 취업 연계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직전 학기 성적 70점(C) 이상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9구간 이하 ▲소득분위 0~4분위 등의 기준이 고려된다. 선발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교내 행정부서나 학술정보관, 교외 초·중·고등학교 등 희망 근로지를 선택하고, 면접을 거쳐 근무가 가능하다.

학기 시작 2~3주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새내기라면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자. 근로 확정 후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 시급은 10,320원이며, 교외 근로의 경우 시간당 12,220원이 적용된다. 교내 우체국 등에서 근로했던 이호영(인문 21) 졸업생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이동시간이 적어 시간 관리에 용이했다"며 "신청 과정에서 지원동기를 성실히 작성하면 선발될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내 행정의 일원이 되다

교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면학근로장학'도 선택지 중 하나다. 선발 과정에서는 소득분위 등이 고려된다. 신청은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선발 공지는 1:2 학기, 하계·동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다. 국가근로와는 달리 모든 근무자는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으며 10,320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급여는 근로 기간 내에 50%가 선지급되고, 나머지는 근로 종료 후 3주 이내에 최종 입금된다. 탐구관 기자실에서 근무한 이아립(인문 4) 학생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아 신체적 부담이 적었고 근로 중에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있어 학업 균형도 알맞았다"고 경험을 전했다.

강의를 돕는 조력자로 일하다

전공 관련 업무를 경험하고 싶다면 '교육조교(TA) 학업장려금'을 확인해 보자. 트

랙·학과(부) 단위로 모집하는 교육조교는 강의 진행 보조, 강의실 개방, 기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공 이해도가 높은 학생을 위주로 선발한다. 모집 공지는 대체로 개강 2~3주 전에 올라오며 선발 절차는 학과별로 상이하다. 근무 시간은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주 2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교육조교는 10,320원의 시급을 적용받으며, 매달 급여가 지급된다. 단, 수업을 지원하는 명목이더라도 교육조교 당사자의 수업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근로를 할 수는 없다. 영어영문학부에서 교육조교로 근무한 최준서(인문 4) 학생은 "영어 관련 전공 조교를 맡으면서 원어인 교수님과 소통할 기회도 많고 자연스럽게 영어도 많이 사용하게 돼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후배들의 실습을 이끌다

후배들의 실습을 도우며 자신의 전공 지식도 다시금 다질 수 있는 '실습 지원 교육

조교 학업장려금'도 있다. 해당 근로장학은 3학점 혹은 4시간 시수로 운영되는 교과목의 실습·실습을 지원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선발은 방학 중에 해당 과목 교수의 재량으로 진행되며 해당 강의 수강 경험이 있고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위주로 선발한다. 신청한 교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선발에 유리하다. 교육조교 학업장려금과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자. 근무는 15주간 주당 2~4시간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교과목의 수업 시수에 따라 근로 시간은 달라진다. 급여 역시 당해 최저시급의 1.5배로 다른 근로에 비해 높다. 또한 학기 종료 후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박용훈(학사운영팀) 팀장은 "실습 지원 교육조교 학업장려금은 선배의 지식을 후배에게 전달해 도움을 주는 봉사 활동임과 동시에 장학금까지 얻어갈 기회"라며 새내기들의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내일을 전하는 [] 만나다

(편집자주)

펜과 카메라를 손에 쥐고 학교 곳곳을 누비는 이들이 있다. 학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식의 현장을 가장 먼저 기록한다. 교내 행사와 정책, 학생사회의 움직임을 취재하며 대학 사회의 흐름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한 지붕 아래 있으니, 그 이름이야 '한성프레스센터'다. 한성프레스센터는 ▲한성대신문사(이하 신문사) ▲한성대학교 방송국 'HBS'(이하 방송국) ▲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 'Hansung Today'(이하 영자신문사)로 구성돼 있다. 신문부터 영상까지 각기 다른 매체 형식을 바탕으로 학내 소식을 전달해 온 세 언론기구는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성인의 눈과 귀가 되고 있다. 본지는 각 기구의 역할과 주요 업무, 그리고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들여봤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한성대신문사 이승희 편집국장



▲HBS 정은서 실무국장



▲영자신문사 유수민 편집국장

한성의 현장을 지면에 담다, 한성대신문사

Q. 신문사를 잘 모르는 새내기들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희 편집국장(이하 이 국장) : 신문사는 1976년에 설립돼 한성대학교와 함께해 온 학내 유일의 언론지입니다. 연간 11회 발행되는 본지는 대학 및 청년 사회 주요 흐름과 사안을 조망하죠.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포착해 공적 제로 끌어올리는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학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학생 자치 언론 기구입니다.

Q. 신문사에서 어떤 주제의 기사를 다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국장 : 신문사에서는 ▲보도 ▲사회 ▲문화 ▲학술 ▲기획 ▲오피니언 등 대학 사회와 청년을 둘러싼 사안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학내 주요 사안과 행사를 전하는 보도 기사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사회 기사를 작성합니다. 또한 문화에서는 최신 유행을 체험 및 전달하며 학술 기사를 통해 대학생에게 유익한 지식과 이론을 소개하죠. 기획 기사는 한 주제에 대한 장기 심층 취재를 다루며 오피니언 기사에는 기자들의 시선을 담은 칼럼을 게재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 신문이 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이 국장 : 발행 과정은 크게 ▲아이템 회의 ▲취재 ▲기사 작성 ▲레이아웃 구성 ▲조판 등으로 나뉩니다. 아이템 회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현장 취재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취재 과정을 거칩니다. 취재가 완료되면 기사를 작성하고 내부 구성원 간 수정 과정을 거치며 기사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기사 작성 후에는 주제에 맞춰 지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편집 과정을 거쳐요. 이러한 전 과정을 마친 뒤 기사를 신문 지면에 배치하는 조판을 완료하면 신문이 발행됩니다.

Q. 신문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국장 : 신문사는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매 학기 비교과 포인트 100pt와 장학금 형태의 활동비·원고료 지급됩니다. 개인 사무 공간과 PC, 사물함 등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4학기 이상 활동할 경우 활동 인증서도 발급됩니다.

실무 경험 측면에서는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며 소통 능력과 사회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어요. 특히 정부 주최 타운홀미팅,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연합 취재 등 다양한 현장 경험도 쌓을 수 있죠. 기사 작성과 수정 과정을 거치며 글쓰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작성한 기사와 활동 경험은 모두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신문사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나 취재 일화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 국장 : '노동절' 현장 취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현장에서 또래의 청년을 직접 만났어요. 교과서로만 접하던 노동권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는 노동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기사를 전달했습니다.

Q. 신문사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 국장 :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60기 수습기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기사 작성 경험이 없거나 글쓰기에 자신이 없더라도, 열정과 끈기를 지닌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문사 활동이 걱정되더라도 선배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방향 중에는 ▲교내의 기자 교육 ▲신문사 MT ▲한성프레스센터 워크숍 등의 활동도 병행하며 기사 작성 외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다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학생기자 활동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를 발견하고 풍성한 대학생활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담긴 한성의 일상, HBS

Q. 방송국을 잘 모르는 새내기들을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은서 실무국장(이하 정 국장) : 방송국은 '자유'의 소리 진실의 소리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 공동체의 소통을 이끄는 학내 언론 기구입니다. 방송국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성 뉴스데스크 ▲HBS 위크맨 ▲한입거리 등 정기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성 뉴스데스크는 매달 한 번, 그 외 콘텐츠는 매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교내 라디오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내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Q. 방송국 조직 구성과 업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 국장 : 방송국은 ▲기획팀 ▲촬영팀 ▲아나운서팀 ▲편집팀 등 총 4개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팀'은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정기 콘텐츠의 제작 전반을 총괄합니다. 영상 촬영 과정에서 '아나운서팀'이 방송 진행을 맡습니다.

Q. 영상이 업로드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정 국장 : 영상 제작 단계는 크게 ▲아이템 회의 ▲방송 기획안·콘티 작성 ▲촬영 ▲편집 등으로 나뉩니다. 아이템 회의를 바탕으로 기획안과 콘티를 작성한 뒤, 취재 및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이후 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된 영상은 내부 피드백을 거친 뒤 업로드됩니다.

Q. 방송국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국장 : 방송국에 입사할 경우 비교과 포인트 100pt와 기자 활동비를 비롯한 방송 제작료가 지급됩니다. 카메라와 같은 방송국 내부 시설과 스튜디오, 개인 컴퓨터, 사물함 등의 장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구성원이 영상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서 수습국원은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Q. 방송국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나 취재 일화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정 국장 : 외국인 유학생을 취재했던 경험을 꼽고 싶습니다. 직접 유학생들을 만나 학교생활의 실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를 방송으로 전달하며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창구가 됐음을 실감했습니다.

Q. 방송국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 국장 : 1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제49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방송국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싶은 새내기들에게도 활짝 열려있으니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영어로 캠퍼스를 읽다, 영자신문사

Q. 영자신문사를 잘 모르는 새내기들을 위해 영자신문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수민 편집국장(이하 유 국장) : 영어로 교내의 소식을 전하는 학내 공식 언론사입니다. 캠퍼스 내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내·외국인 학생에게 캠퍼스 소식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자신문사의 신문은 잡지 형식으로 제작되며, 3개월에 1번, 연간 4회 정기 발행합니다. 또한 학내 영어 학습 문화를 확장하기 위해 매년 1학기에는 '한성 교내 영어 수필 대회', 2학기에는 '한성 교내 영어 스피치 대회'를 기획하고 주관합니다.

Q. 신문이 발행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유 국장 : 신문 제작을 위해 ▲아이템 회의 ▲한글 기사 회의 ▲영어 기사 회의 ▲레이아웃 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기사 아이템을 정하고 기사에 알맞은 취재 방향과 기사의 구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취재를 거쳐 먼저 한글로 기사 초안을 작성해요. 피드백을 진행해 구성을 매끄럽게 수정한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영어 기사로 재작성하며 문법과 표현 등에 대해 내부 구성원 간 원고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 원고는 내·외국인 교수 2인의 교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원고 교정 이후에는 신문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기자들이 각 기사의 주제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잡지 형식의 레이아웃을 구성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영자신문사의 신문이 탄생합니다.

Q. 영자신문사의 조직 구성과 업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 국장 : 현재 영자신문사는 ▲특집부 ▲취재부 ▲문화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집부는 국내외 사회 이슈를 파악해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부는 교내 행사와 학내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관련 기사를 보도합니다. 문화부는 문화·예술·트렌드에 관련된 기사를 담당해요. 각 부서의 역할은 나누지만 모든 기사는 교내 구성원과 관련 있는 주제로 기획됩니다.

Q. 영자신문사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 국장 : 모든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받고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간 활동 후 평가를 거쳐 정기자로 승급 시 기자증과 명함, 활동비 등이 제공됩니다.

Q. 영자신문사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유 국장 :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제40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영자신문사라는 이름 때문에 영어 실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자신문사에서는 언론에 대한 관심과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 중앙운영위원회 인터뷰

공약의 세부 내용과 당찬 포부를 한성대신문 온라인 기사로 만나보세요

총학생회 온(ON:穩)
총대의원회 백야
학생복지위원회 서사
동아리연합회 VYNE

한성대신문사 제60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의 내일을 쓰는 문장, 지금 당신의 손에서!

01.19 - 03.10(화) 23시 59분까지



아이템 회의

인터뷰 및 사진 촬영

비교과포인트

원고료 지급

레이아웃 디자인

초고 작성 및 퇴고

교정 및 조판

활동비 지원

개인 책상 및 PC 제공